

“국어 테러” 역대급 불수능... 성적 발표전 수시 포기 이르다

“국어 때문에 전과목 망쳐” 가채점 고3 교실 ‘멘붕’
등급컷은 예상일 뿐 ‘최저기준 실패’ 단정 말아야
내달 5일 성적 발표 뒤 정시 전략 짜도 늦지 않아

“국어때문에 수능 전체를 망쳤어요.”(고3 수험생), “벌써 교실에서 ‘재수’(再修) 얘기가 나옵니다.”(고3 교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인 지난 16일 고3 교실에서는 말 그대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첫 과목인 국어영역이 역대급 난도여서 국어는 물론 전체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목소리가 대세였다. 교사들은 “수능은 끝났지만 대입은 이제 시작이다”며 다독였지만 학생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어려운 국어 탓에 당황해 영·수를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도 안나요”=이날 고3 학생들은 2번째 충격을 받았다. 전날 시험장에서 국어 시험지를 받아 들고 풀면서 받았던 첫 번째 충격에 이어 가채점 결과를 마주하고 또 다시 멘탈 붕괴에 빠진 것이다. 학생, 교사 모두 온통 국어 얘기였다. “국어 테러였다”, “지문과 보기에 담긴 정보의 양이 워낙 많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풀 문제가 한 톨이 아니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모의고사와 교내 지필고사에서 95점 수준을 유지했던 상위권 학생조차 올 수능 국어에선 85점을 넘기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교사들과 수험생들 전언이다. 광주 광덕고 신희돈(국어) 교사는 “첫 과목인 국어가 학생들 입장에서 워낙 어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국어는 물론 나머지 수학, 영어 등 전과목에 악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입시학원가에서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컷(컷트라인)을 지난해 93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은 85~86점(원점수 기준)

최선을= 지난 주말 학생들을 달래느라 진땀을 뺀 교사들은 “이젠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능이 끝난 것이지만 입시 마감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고3 교사들은 우선 수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성적 발표(12월 5일) 전까지 가채점 결과가 예상 등급컷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레 낙담하지 말고 남은 수시 일정(면접 및 논술 등)에 최선을 다하라는 주문이다.
입시학원 등을 중심으로 국어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 85점대, 수학 가형은 92점, 나형은 88점, 절대평가 체제인 영어(90점 이상) 1등급 비율 인원은 5~8%대로 나타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뿐이니 수능최저기준 충족에 실패했다고 단

정하면서 수시 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그러면서 “정시지원 전략 검토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 발표부터 정시 지원 일자(12월29일~1월3일)까지 1개월 가까운 시간이 주어지니 당장은 수시에 올인하라는 조언이다. 광주 송덕고 장광재(진로진학) 교사는 “수능 직후 쏟아져 나오는 예상 등급컷이라는 게 꼭 정확한 게 아니다. 지레 포기하는 건 금물”이라며 “수시 지원 대학 가운데 점수와 관계없이 진로 적성에 맞게 꼭 가야할 대학이라면 끝까지 대학별고사 등 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수시 논술고사를 끝내고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끝’ 광주 스킨미투 고3 피해조사 시작

경찰 “올해 안에 사건 검찰로”

광주에서 올해 두 번째로 발생한 ‘스킨미투’ 사건의 고3 피해진술 취차가 시작됐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전남대수사팀이 최근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을 치른 A고등학교 고3 수험생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 의뢰로 지난달 16일 수사에 들어가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고3 수험생 진술 취하는 수능 이후로 미뤄왔다.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 학교 학생 대다수가 3학년 대입 수험생으로 알려졌다. 전남대수사관 6명을 투입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선호하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구청, 청소년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도움이 될

요한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진술 취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속도를 내 올해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A고교 학생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계정을 만들어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면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교사 19명을 검찰에 송치한 ‘광주 스킨미투’ 파문에 이어 A고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지자 전교생 95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나섰다.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교원 15명을 분리 조치했고, 과거 기간에 교사로 근무했던 1명을 더해 모두 1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모두 직위 해제됐다. /김용희 기자 kimyh@

‘채용 사기·매점 운영권 비리’ 조선태 전 이사 등 징역형

조선이공대 교직원 채용 사기와 매점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조선태학교 전 이사 부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강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태 전 이사 박모(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인 조선태 전 이사 김모(60)씨와 조선이공대 전 총장 최모(62)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중재 혐의인 최모(51)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매점 운영자 김모(5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 최 전 총장, 매점 운영자 김씨 등 3명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김 전 이사에게는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1988년 물러난 박모 전 조선태 총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4년 6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주면 조선태에 조카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현금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와 최 전 총장은 각각 2014년 조선이공대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직접 돈을 받거나 연결해준 혐의로, 김씨의 일을 돕던 최씨와 매점 운영자 김씨는 뇌물을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이사는 2014년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씨 등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2200만원 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

불수능에도 만점자 4명 나온 듯

재학생 1명 등 모두 자연계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응시생 52만7505명(3교시 영어영역 기준) 가운데 4명 가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만점자는 전국에서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자연계열 학생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1명, 졸업생은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식적으로 전 영역 만점자를 발표하지 않

고 성적통지일에 영역별 표점점수 최고점자 수만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채점결과 브리핑에 나선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 영역 만점자(영어·한국사 1등급 기준)가 재학생 7명, 졸업생 7명, 검정고시생 1명 등 1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졸업생의 만점 여부는 주로 입시학원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지는 데 비해 재학생 만점 사실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지는 만큼 만점자가 4명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인사 부당개입’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위·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소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6일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심리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당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

‘강아지 네 다리에 심한 화상’ 경찰, 학대의혹 수사

○광주시 남구에서 네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강아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에 광주 남구 한 상가 건물에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강아지가 있다는 행인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발견 당시 강아지의 네 다리는 까맣

게 그을려 있고 살갗도 벗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
○현재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 ‘유기동물의엄마아빠’에 넘겨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패혈증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견주인 A(85)씨는 경찰조사에서 “5일 전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 같다. 그동안 치료를 해왔다”고 진술. /김용희 기자 kimy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